

수목극 평정 본격 시동 <냄새를 보는 소녀>

박유천, 신세경 팬층 후끈... 방송 전부터 관심 증폭



<하이드 지킬, 나> 후속으로 방송되는 <냄새를 보는 소녀>(이하 <냄보소>) 촬영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냄보소>는 동명의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한 작품으로, 냄새가 눈으로 보이는 초감각 소녀와 어떤 감각도 느낄 수 없는 무감각 형사가 주인공인 미스터리 서스펜스 로맨틱 코미디드라마이다.

같은 사건으로 커다란 마음의 상처를 갖게 된 두 남녀 무감(박유천 분)과 초림(신세경 분). 두 사람이 서로의 아픔을 치유해 가는 과정에서 상큼 발랄한 로맨스가 진행된다. 사건 수사 파트너이지만, 소극장 무대 위에서는 만담콤비로 급변하는 이들의 '갑을관계' 속에서 최고의 코미디도 선사하게 될 예정이다.

<냄보소>는 <옥탑방 왕세자>, <야왕>을 집필했던 이희명 작가와 <황금신부>, <호박꽃순정> 등을 연출한 백수찬 감독이 뭉쳐 최고의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박유천은 출연하는 작품마다 상을 거머쥐어, 이번에도 그 신화를 이어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월 둘째 주에 SNS를 통해 공개된 <냄보소> 1차 티저는 3월 24일(화) 현재 19만여 명이 조회했으며, 셋째 주에 공개된 2차 티저는 현재까지 9만여 명이 조회하는 등 박유천, 신세경의 팬들을 중심으로 갈수록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주연인 박유천과 신세경, 그리고 남궁민, 윤진서 뿐만 아니라 김소현과 개그맨 정찬우, 김병욱, 이원중, 조희봉, 오초희, 최재환, 남창희, 박진주, 최태준 등 최고의 조연이 뭉쳐 방송 전부터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냄새를 보는 소녀>는 4월 1일(수)부터 매주 수, 목요일 밤 10시에 방송된다.

봄 개편 **파·격·편·성 승·부·수 통·했·다!**

<아빠를 부탁해> 동시간대 예능 1위 등극



3월 21일(토) 저녁 8시 45분 첫 방송된 <아빠를 부탁해>(연출 장혁재, 황인영, 민선홍, 최소형)가 7%의 시청률을 기록했다(닐슨코리아/전국). 전작인 <떴다 패밀리>의 마지막 시청률 2.3% 보다 4.7% 높은 수치이며, 동시간대 방송된 예능 프로그램 중 1위이다. 특히, 49세 이하 연령층의 비중이 77%에 달하는 등 젊은 층이 관심을 보여, 건강한 가족 예능이 막장 드라마를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이날 심야에 방송한 <아빠를 부탁해> 재방송 시청률은 4.9%로, 이례적으로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

<아빠를 부탁해>는 설 특집 파일럿으로 방송되었다가 뜨거운 인기몰이로 정규 편성된 프로그램. 파일럿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된 이경규-예림, 강석우-다은, 조재현-혜정, 조민기-윤경 부녀들은 첫 회에서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을 보였다.

방송 중 <아빠를 부탁해>는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했으며, 방송 후 인터넷에는 "포맷 좋고 출연진들도 좋다", "딸들 다 예쁘고 순수해서 호감", "아빠와 딸의 사이, 가족마다 정말 다르네. 재밌다", "나도 우리 아빠에게 잘 해야겠다" 등 네티즌들의 공감과 호응이 이어졌다.

<웃찾사> 최고 시청률 9.1%, SNS 호평 봇물



<웃음을 찾는 사람들>(연출 공희철, 안철호/이하 <웃찾사>)이 개편 첫 방송에서 순간 최고시청률 9.1%, 전국기준 5.9%, 수도권 6.1% (닐슨 코리아)를 기록하며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다. 이는 지난주 동시간대 드라마 <떴다 패밀리>의 2.3%를 2배 이상 끌어올린 수치이다. 주말 드라마와 <개그 콘서트> 등 경쟁한 프로그램들이 포진한 시간대로 방송 시간을 옮긴 <웃찾사>가 시청자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이다.

개편 첫 방송에서 <웃찾사>는 '배우고 싶어요', '막둥이', '뿌리 없는 나무' 등 기존 인기 코너를 비롯하여 강성범, 장재영이 활약한 '모란봉 흡소핑'을 새로운 코너로 선보이며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방송 직후 <웃찾사>에 대한 반응도 무척 뜨거웠다. 실시간 검색어에는 <웃찾사>와 개그맨 안시우, 이태영 등이 상위권에 오르며 포털사이트를 달구었다. 또한 각종 SNS와 인터넷 댓글을 통해 "<웃찾사> 참신하다!", "일요일에 보니까 너무 좋다" 라는 등 다양한 호평들이 쏟아졌다.

개편 첫 방송에서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웃찾사>는 매주 일요일 밤 8시 45분에 방송된다.

“헉! 우리 아이들 수준이...” <영재발굴단> 첫방



3월 25일(수) <영재발굴단>(연출 김재원, 황성준) 첫 회가 방송됐다.

설 특집으로 방송되었다가 화제를 모으며 정규 프로그램으로 안착한 <영재발굴단>은 영재들을 위해 한층 더 깊어진 진지한 고민을 시작했다. 출연 영재들을 위해 자문단을 구성했으며, ‘아빠 MC’를 자처하는 ‘컬투’가 진행을 맡았다.

개그 프로그램보다 수학이 더 재밌고, 소수의 불규칙성에 빠져 지낸다는 민우, 6살 때 이미 만 권의 책을 독파했다는 9살 쌍둥이 자매, 설 특집 당시 엄청난 집중력과 승부욕을 보여준 가수 박상민의 딸 소운. 이들을 단순한 영재에서 대한민국을 이끌 인재로 키우기 위해 각 분야 전문가들이 나섰다.

제작진은 “특정 분야에 능력을 소유한 아이가 인성을 무시하지 않은 채 능력을 잘 유지·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하겠다”고 밝혔다.

<영재발굴단>은 SNS 및 프로그램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시청자 제보 및 시청자의 견을 프로그램에 적극 반영한다.

행복한 영재로 키우는 건강한 교육법은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55분 <영재발굴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불금’ 11시대, 4050이 달군다 <불타는 청춘>



이번에는 꽃피는 남도다. 3월 27일(금) 밤 11시 25분에 첫 회가 방송되는 <불타는 청춘>(연출 박상혁, 김용권)이 최근 전남 광양시 다압면 고사리, 섬진강변 매화마을에서 촬영을 마쳤다.

<불타는 청춘>은 한때는 청춘스타였으나, 현재는 마음만은 청춘인 중년 싱글 연예인들이 떠나는 과감하고 유쾌한 ‘MT형 버라이어티’로서, 설 특집으로 방송됐다가 뜨거운 인기를 업고 정규 편성되었다.

설 특집에 출연했던 이근희, 김도균, 김국진, 양금석, 홍진희, 강수지, 김혜선 외에, 성악가 김동규, 가수 조정현이 새롭게 합류했다.

이들은 봄이 찾아온 섬진강 언저리의 평화로운 시골 마을 구경에 나서기도 하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말뚝박기’ 같은 어릴 적 골목길 놀이를 하며 동심으로 돌아가기도 했다.

김용권 PD는 “처음에는 규칙을 제대로 기억해내지 못하기도 했지만, 일단 놀이가 시작되니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을 정도로 출연자들이 진심으로 즐거워했다”고 전했다.

같은 세월을 지나온 중년 싱글들의 우정 만들기 <불타는 청춘>-매화마을 편은 3월 27일과 4월 3일(금) 밤 11시 25분에 방송된다.

차원이 다른 일반인 관찰 예능... ‘빵’ 터진다

<동상이몽, 괜찮아 괜찮아> 3월 31일(화) 밤 11시 첫 방송



배려의 아이콘 유재석과 독설의 대명사 김구라가 처음 호흡을 맞춰 화제를 모으고 있는 <동상이몽, 괜찮아 괜찮아>(연출 서혜진/이하 <동상이몽>)가 3월 31일(화) 밤 11시에 방송된다.

<동상이몽>은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초, 중, 고

10대 자녀와, 그들과 한집에서 서로 사랑하고, 미워하며, 치열하게 부딪히는 부모가 서로의 생각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해결책을 모색해보는 프로그램이다.

3월 22일(일), 상암동 SBS프리즘타워 녹화 현장에는 진한 화장을 하는 중학생 딸 때문에 고민이라는 엄마, 특으로만 대화하는 모녀, 연예인병에 걸린 아들을 둔 엄마 등 사춘기 자녀와 갈등이 있는 일반인 세 가족이 출연해 그들의 사연을 공개했다. 패널로 출연한 개그맨 지식진, 박은경 아나운서, 이한석 기자, 장영란, 걸그룹 AOA의 멤버 지민, 아역배우 노태엽 등은 부모와 자녀의 입장에서 각자 해줄 수 있는 조언들을 솔직하게 들려주었다.

방청객의 응원까지 더해진 녹화 현장은 재미와 감동이 어우러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녹화가 진행됐다는 후문이다.

오지 쿡방의 진수 <정글의 법칙 in 인도차이나>



<정글의 법칙 in 인도차이나>(이하 <정법>)가 3월 27일(금) 첫 방송된다.

병만족의 18번째 도전지 인도차이나는 때 묻지 않은 원시림과 푸른 바다가 펼쳐진 곳. 그곳에서 터줏대감 김병만과 류담을 비롯해, 이성재, 레이먼 김, 서인국, 장수원, 손호준, 김종민, 박형식, 임지연 등 10명의 멤버들이 역대급 활약을 펼친다.

영똥 발랄한 팔색조 매력의 만형 이성재, <정법> 역사상 가장 럭셔리한 요리로 멤버들의 입을 호강시킨 요리사 레이먼 김, 자존심 대결을 벌인 로봇 연기의 진수 장수원과 어리바리 김종민, ‘아기병사’에서 부족 여인들의 눈길까지 사로잡은 완벽한 남자로서 거듭난 박형식, 두 번째 합류한 <정법>에서 목수의 재능을 발견한 손호준, 사냥, 낚시, 요리 무엇이든 척척 해낸 정글 체질 서인국, 신비주의를 벗고 <정법>으로 생애 첫 예능 신고식을 치른 대종상 신인상 임지연의 털털한 매력 등 <정글의 법칙 in 인도차이나>는 개성 만점의 멤버들이 그들만의 매력을 선보인다.

김진호 PD는 “이번 인도차이나 편에서는 출연자들의 가족과 <정법> 선배들이 미션을 내고, 멤버들이 이 미션들을 수행해 나간다”고 귀띔했다. 데뷔 20년 기념으로 <정법>에 출연한 카리스마 배우 이성재의 예측 불허의 엉뚱한 모습은 또 다른 시청 포인트라고 한다.

‘순수함’이 보여준 저력, <글로벌 붕어빵> 300회



2009년에 첫 회를 방송한 <글로벌 붕어빵>(연출 유윤재/이하 <붕어빵>)이 3월 22일(일) 300회를 맞았다. 6년이라는 기간 동안 무려 200여 가족이 <붕어빵>을 거쳐 갔다.

300회 특집에는 300회를 맞아 다시 보고 싶은 가족으로 선정

된 탤런트 이정용의 믿음(11세), 마음(9세) 군 형제가 출연하여 반가운 마음을 더했다. <붕어빵>이 낳은 스타 박민하(9세) 양은 특별 무대로 샤이니 태민의 ‘괴도’를 절도 있는 동작과 카리스마 넘치는 표정으로 완벽 재현하여 300회 특집을 축하했다.

1회부터 출연하며 <붕어빵>의 마스코트 역할을 해왔던 김구라의 아들 동현 군도 힙합 아티스트를 꿈꾸는 17살 소년으로 폭풍 성장하여 축하 인사를 보냈다.

<붕어빵>은 아이들과 함께하는 방송이기에 자극적이지 않은 데다 아이들의 순수함으로 자연스레 힐링이 되기도 한다. ‘착한 예능’으로 기본적인 모습은 그대로였기에 자극적인 프로그램들 사이에서 300회를 맞을 수 있었다.

〈신의 선물〉 등 빅3, 지상파 중 유일 MIPTV 초청

SBS의 장르물, 글로벌한 콘텐츠로 인정받아



SBS의 장르물 빅3 〈신의 선물-14일〉, 〈주군의 태양〉, 〈너의 목소리가 들려〉가 세계 최대 콘텐츠 마켓인 MIPTV에 초청받았다. 프랑스 칸에서 개최되는 MIPTV는 1965년부터 개최된 세계 최대의 미디어 콘텐츠 마켓이다.

SBS는 MIPTV 주최 측의 요청으로 드라마 포맷을 소개하는 쇼케이스에 국내 지상파 중 유일하게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MIPTV 초청은 한국의 장르물이 글로벌한 콘텐츠로 인정받았다는데 의의가 있다.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주제로 6개사 6명의 스피커에게 주어지는 드라마 포맷 발표 기회에서 SBS는 TV드라마의 장르적 한계를 뛰어 넘은 〈신의 선물-14일〉과 한국적 호러물 〈주군의 태양〉, 공감각을 소재로 한 판타지&미스터리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를 발표한다. 이 중에서도 이야기의 포맷과 장르적 매력을 극대화시킨 영상미로 최근 미국 리메이크가 확정된 이동훈PD의 〈신의 선물-14일〉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SBS 데이터 구축 기여, 이선용 차장 정년



2015년 3월, 윤리경영팀 이선용 차장이 정년 퇴임한다. 이선용 차장은 1991년 1월 입사 이후 전산팀에서 근무하며 창사 초기 사무자동화 시스템 개발과 안정화에 기여하였다.

이후 데이터정보팀에서 디지털 콘텐츠 수익사업인 SBS 인포샵을 개발·운영하였고, 1999년부터 SBS미디어넷 사업팀장으로 근무하였다.

2001년에 다시 데이터정보팀으로 돌아와 제작디지털시스템(PDS) 개발에 참여하였고, 2009년부터 근무한 윤리경영팀에서 정년을 맞게 되었다.

통신·콘텐츠유통·커머스 등 신규사업 본격 추진

제25기 SBS 정기주주총회, 관련 정관 변경



제25기 SBS 정기주주총회가 3월 20일(금) 목동 SBS방송센터 13층 SBS홀에서 열렸다. 이웅모 대표이사의 진행으로 개최된 이날 주총에서는 제25기 영업보고 및 감사보고가 있었고, 새로운 수익원 발굴을 위하여 정관 제2조(목적)에 사업항목을 추가하는 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새로 추가되는 사업은 통신, 엔터테인먼트 사업/영화 등 영상물 관련 사업/콘텐츠유통, 전자상거래 및 뉴미디어 관련 사업/부동산업 및 시설·장비 임대업 등이다.

SBS 영상자료, 국립중앙도서관에 영구보존된다

SBS는 23일(월), 방송사 최초로 국립중앙도서관(관장 임원선)과 방송영상자료 기증 및 보존 업무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협정으로 SBS는 자체 제작한 방송영상자료 비디오테이프 29만여 점과 디지털파일 8,650TB, 자료 재생장비(디지털 플레이어 등 4종 7대) 등을 국립중앙도서관에 기증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은 SBS가 기증한 디지털파일의 보존 활용을 위한 저장장치를 설치하고, 보존용 디지털파일은 비공개 방식으로 아카이빙 한다. 방송된 서비스용 디지털파일은 도서관 방문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협정으로 SBS는 보존가치가 높은 자사의 방송원본 테이프를 국가 공공자료로 전환하고, 방송 프로그램의 대국민 서비스 창구를 확대하는 등 방송사의 공적 책임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형제복지원의 진실’, 여섯 번째 수상...진기록

〈그것이 알고 싶다〉 제13회 언론인권상 특별상 수상



〈그것이 알고 싶다〉 ‘홀로코스트, 그리고 27년-형제복지원의 진실’(연출 배정훈) 편이 언론인권센터가 주관하는 ‘제13회 언론인권상’ 특별상을 수상한다.

‘형제복지원의 진실’ 편은 형제복지원 비리에 국가의 비호가 있었다는

강력한 문제제기를 통해, 국가책임을 통한 진실규명이 필요함을 공론화시켰다. 또한 아직도 형제복지원 사건이 현재진행형으로 지속되고 있음을 밝혀, 우리사회의 무관심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를 이끌어내는데 기여했다.

‘형제복지원의 진실’ 편은 작년 3월 방송 이후 ‘이달의 PD상’,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 ‘2014 상반기 SBS 시청자위원장상’, ‘노근리 평화상’, ‘YMCA 좋은 방송 대상’ 장려상에 이어 여섯 번째 상을 받게 되었다. 시상식은 3월 26일(목) 오후 7시 프란치스코회관 2층(중구 정동)에서 열린다.

버디 나올 때마다 기부금 적립, 불우아동 돕는다

KLPGA와 ‘드림 위드 버디’ 업무협약 체결



좌로부터 오동현 SBS플러스 스포츠경제본부장, 강춘자 KLPGA 수석부회장, 유종연 희망내일위원회 사무총장

SBS희망내일위원회와 SBS골프, 사단법인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이하 ‘KLPGA’)는 3월 16일(월) 목동 SBS 방송센터에서 ‘KLPGA와 SBS가 함께하는 드림 위드 버디’ 협약을 체결했다. SBS미디어그룹의 사회공헌 프로그램 중 하나인 ‘드림 위드 버디’는 KLPGA 투어 매 대회에 특정 홀을 드림 위드 버디홀로 지정하고, 해당 홀에서 버디가 나올 경우 일정액을 적립해 시즌 종료 후 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적립금은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에 기부되

며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에 쓰인다.

이번 캠페인은 SBS골프의 대표 콘텐츠인 KLPGA 중계를 통해 연중 지속적인 사회공헌을 시행하며, SBS미디어그룹과 함께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와 선수들까지 ‘드림 위드 버디’ 기부에 동참하는 등 SBS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널리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드림 위드 버디’는 오는 4월 9일(목)에 열리는 2015시즌 KLPGA투어 국내개막전 ‘롯데마트 여자오픈’부터 시작한다.

〈2015 대한민국 골프대전〉 성황...5만 명 관람



〈2015 대한민국 골프대전〉(이하 골프대전)이 3월 19일(목)부터 22일(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 3홀, 4홀에서 열렸다.

19일에 열린 개막식에는 SBS골프 윤희식 대표이사를 비롯해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 강춘자 수석부회장, 한국프로골프협회(KPGA)회장 황성하, 나이키골프코리아 박성희 대표이사, 석교스포츠 한재영 대표이사 등 골프산업을 대표하는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올해로 12회를 맞이하는 골프대전은 골프의 대중화와 국내골프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매년 3월 골프 마니아들의 ‘봄꽃축제’로 자리매김한 골프대전은 올해도 약 5만 명의 방문객이 찾아 골프팬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그것이 궁금하다

중간광고 규제 풀려야 활성화 기대 - 광고총량제·가상광고

지난해 12월 2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침체된 방송광고 시장의 활성화와 지상파 TV의 경쟁력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규제완화의 핵심내용인 지상파 TV의 광고총량제와 가상광고에 대해 광고팀에 알아 보았다.

이번에 규제 완화가 추진되는 광고총량제와 가상광고의 주요내용은?

광고총량제 도입으로 ①광고유형별 규제 삭제와 ②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광고량 허용이 적용된다. 기존의 광고유형별(프로그램/토막/자막/시보) 광고시간과 횟수를 규제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총 광고 허용시간(프로그램 편성시간의 평균 15/100, 최대 18/100) 내에서 방송사 자율로 광고유형을 결정&집행하는 제도가 광고총량제의 기본 내용이다.

가상광고의 경우 기존에는 운동경기 중계에만 허용되었으나 이번 규제완화로 인해 허용장르가 교양·오락(드라마포함)·스포츠보도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 어린이프로그램과 (스포츠 외) 보도, 시사, 논평, 토론 프로그램은 제외된다.

광고총량제와 가상광고 허용장르 확대의 적용 시기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3월말~4월초 위원회 의결이 예상되며 시행령 개정절차를 고려해볼 때 적용시점은 올해 5월~6월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최종 시기는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규제완화가 광고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광고 유형별 규제가 없어지고 광고 가능 시간이 늘어난 만큼 '광고 혼잡도(*광고가 한꺼번에 많이 몰리는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고주 입장에서는 자신이 후원한 광고 주변에 타사 광고가 더 많이 편성되면 광고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해 오히려 보수적으로 광고비를 집행하는 사례도 많아질 것이다. 중간광고 없이 프로그램 사이 광고 시간만 길어질 때 발생하는 현상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시뮬레이션 결과도 방송3사 합쳐 연간 217~614억원, 광고주 설문조사에서는 444억원의 매출 증가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중간광고를 포함하지 않은 광고총량제로는 의미 있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광고용량을 현재보다 크게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킬러 콘텐츠(Killer Contents) 보유 여부 등 경쟁력 상황에 따라 방송3사간 광고비 이동이 보다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상광고는 광고영향력과 잠재력은 매우 높지만 시행 6년차에 들어서는 유사한 형태의 간접광고 매출을 감안할 때 활성화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방송광고 규제완화 입법예고 내역 (지상파TV 및 라디오 매체기준)

부문	매체	기존 시행령	변경된 시행령
광고총량제	지상파TV 라디오	* 광고유형별 세부 규제 * 프로그램 광고(방송시간 10/100) 토막, 자막, 시보 세부 규제	* 광고유형별 규제 삭제 *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평균 15/100, 최대 18/100 (단, 프로그램 광고는 최대 15/100)
가상광고	지상파TV	운동경기 중계에만 허용	기존 운동경기 중계 뿐만 아니라 교양, 오락, 스포츠보도 프로그램까지 가상광고 허용범위 확대
간접광고	지상파TV		방송프로그램 흐름 및 시청 흐름을 방해하지 않을 의무와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에서 규정
협찬	지상파TV 라디오	방송광고가 금지된 상품이나 용역을 제조·판매 또는 제조하는 자는 협찬 고지를 할 수 없음	한 협찬주가 복수의 상품이나 용역을 제조·판매 또는 제공하는 경우, 광고가 금지되지 않은 상품·용역에 대해서 협찬고지 허용

'꿈꾸는 소녀'들의 뛰어난 가창력...보기 드문 수작

관람 후기 뮤지컬 <드림걸즈>

HR팀 채중윤

'브로드웨이 역사상 가장 화려한 쇼'. 뮤지컬 <드림걸즈>의 수석어이다. 2009년 한국 초연 당시에는 무대 3면에 걸친 400여개의 LED패널을 통해 파격적인 화려함을 연출하였으나, 6년 만에 다시 만난 <드림걸즈>는 그 화려함 속에 감춰진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잘 담아내, 흥겨움과 몽클한 감동을 함께 느낄 수 있었다.

드라마의 '깊이'에 가장 주안점을 두었다는 연출자 데이비드 스완의 말처럼, 전반적인 무대 구성과 흐름은 초연보다 많이 간결해졌다. 고정세트를 최소화하는 대신 상황에 따른 이동 장치 활용으로 등장인물에 대한 집중도를 높였고, LED조명은 화려함보다 주인공의 감정 변화를 보조하는 중요한 장치로 쓰였다. 그 외에도 단순 볼거리용 장면보다 각 인물들의 사연에 초점을 맞춰 관객들의 공감을 이끌어낸 연출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그렇게 스토리에 집중된 공연은 시종일관 관객들에게 '꿈'과 그것을 이루는 '과정'에 대해 묻는다. 배경이 된 1960년대 미국은 철저히 백인 중심의 음악이 주류를 이뤘고, 리드보컬 '에피 화이트'는 팀의 성공을 위해 자신보다 아름다운 외모와 부드러운 보컬을 지닌 친구 '디나 존스'에게 자리를 내줘야만 했다. 그 후 자존심 때문에 탐을 떠나는 에피, 우정보다 꿈을 선택하는 디나와 로렐, 자신만의 음악을 버리고 주류 음악을 택한 R&B스타 지미, 성공을 위해 냉혹한 사업가로 변해가는 기획자 커티스 등, 주인공들은 성공을 쫓는 과정에서 잃어버린 자신을 되돌아보게 된다. 그들이 정말 행복한지 자문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 역시 지난 시절 가졌던 꿈과 현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었다.

스타 비욘세가 디나 역을 맡은 영화로도 유명한 덕에, 주요 넘버들이 익숙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넘버들이 흑인 소울 음악을 바탕으로 하다 보니, 음역 폭이 넓고 표현이 까다로워 배우들이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런 후문이 무색하게도, 모든 배우들이 원곡에 못잖은 가창력으로 곡을 소화해 공연 내내 귀가 참 즐거웠다.

영화 <드림걸즈>를 감명 깊게 보신 분들이나, 눈앞에 살아 숨 쉬는 공연의 활력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기대 이상의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마침 SBS미디어 그룹 임직원에게 40~50% 특별 할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 보기 드문 수작 쇼 뮤지컬 <드림걸즈>를 통해, 공연의 즐거움과 더불어 잊고 있을지도 모르는 꿈과 행복을 되새겨보기 바란다.



뮤지컬 <드림걸즈>

일시: 2월 26일(목) ~ 5월 25일(월)

장소: 샤롯데 씨어터

[개알정보 3가지]

1 영화 <드림걸즈>는 원작 뮤지컬을 영화화한 작품이다.

2 유명한 곡 'Listen'은 영화를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곡이다.

3 주인공 '에피 화이트'의 실제 모델인 '플로렌스 발라드'는 공연에서와 달리, 팀에서 쫓겨난 후 전 소속사의 방해로 솔로 활동에 실패했고 불행한 결혼 생활 끝에 병으로 쓸쓸히 생을 마감했다.

경조사

· 축하합니다

경영지원본부 인프라관리팀 박인욱 사원 특남(3월 14일)

경영지원본부 ERP팀 이기석 부국장 장남 결혼(3월 21일)

· 애도합니다

경영지원본부 시설팀 김광운 차장 모친상(3월 24일)

사우 여러분의 사보 참여를 기다립니다. 여행 후기나 독후감, 전시나 공연 관람후기, 그밖에 사우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떠오른 단상들을 사보 담당자(PR팀 전은진 차장)에게 보내주세요. 채택되신 분들께 소정의 상품(수예당 화과자, 세븐 스프링스 목동점 식사권 등의 상품 중 한 개)을 드립니다.